

폭염에 태풍까지... 채소값 폭등

깻잎·부추·배추 하루만에 40% 쯤

과일·수산물도 영향... 식탁물가 비상

제15호 태풍 불라벤이 광주·전남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폭염과 폭우로 오를 대로 오른 채소값이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어장을 비롯한 산지 곳곳이 초토화되면서 농수산물 피해도 심각해 추석을 앞두고 식탁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28일 광주시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실시간 경락정보를 살펴본 결과 깻잎(4kg·특1등)이 1만6000원으로 하루 사이 37.7%(2900원)이 급등했다. 부추(4kg)도 최저 4000원~최고

7600원에 거래되면서 평균가격이 6020원으로 하루 사이 40.5%(1735원)나 급등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최저 4000원~최고 6000원에 거래가격이 형성됐던 깻잎이 배추가 7000~8000원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또 태풍 피해로 산지 출하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품목은 반입이 중단된 상태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덕형 농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채소 경매과장은 "보통 태풍이 오면 시세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

에 채소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전남 산지 피해가 커서 열무, 얼갈이 배추, 속갯 등 일부 품목은 물 건 반입 자체가 안될 것 같다"며 "2~3일이 지나면 채소값은 더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추석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배와 사과 등이 태풍에 떨어지는 등 농작물 피해까지 속출해 제수용품으로 쓰이는 과일 등의 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현재 농협 광주공판장에서 일반 소비용 사과(홍노) 고급품이 15kg 기준 8만원대, 배(원양)는 5만원대, 포도는 5kg 1박스 최상품이 3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태풍으로 낙과율이 높아지면서 추석을 앞둔 제수용품의 가격이 높았던 지난해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로 수협 광주공판장에서 도매로 거래되는 전복은 건 반입 자체가 안될 것 같다"며 "2~3일이 지나면 채소값은 더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완도와 여수 등지에서 가두리 양식장이 초토화되면서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어 소매가격은 더욱 될 전망이다.

농협 광주공판장 관계자는 "올해 사과와 배 등 과일은 재배 면적 증가로 출하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애초 지난해보다 40% 정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런데 이번 태풍으로 낙과율이 높아지면 지난해 수준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스위스 비밀계좌 올 신고액 1000억 넘어

작년의 14배... 해외금융계좌 총 18조원 예치

한국인의 스위스 비밀계좌가 배 일을 벗고 있다.

개인들이 올해 국제청에 신고한 스위스 비밀계좌 신고금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작년보다 1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국제청은 지난 6월 10억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652명이 5949개 계좌에 18조6000억원을 예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신고인원은 첫 신고를 받은 작년보다 24.2%, 액수는 무려 61.8%나 늘었다.

개인은 302명이 1059계좌에 2

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인원은 43.1%, 신고액은 115% 급증했다.

법인인은 350개 법인이 4890개 계좌에 16조5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증가율은 인원(11.5%), 신고액(57%) 모두 개인에 크게 못미쳤다.

개인 1인당 평균신고금액은 69억원으로 작년(46억원)보다 50% 늘었다. 법인은 335억원에서 471억원으로 41% 증가했다. 올해 신고의 특징은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액과 국외 주식계좌 신고액이 대폭 늘어난 점이다.

스위스계좌 신고액은 작년 73억

원에서 올해 1003억원으로, 주식계좌 신고액은 2조5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스위스계좌 신고자 수는 작년에는 5명 이하에서 올해 10명 정도로 늘었다. 수백억원을 보유한 개인 몇 명이 신고해 전체 규모가 커졌다.

국제청은 자신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소명 요구 등 세부간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7.7%로 가장 많았다. 50억 이상도 22.8%나 됐다. 법인은 50억원 이상이 48.6%를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자 "6개월후 경기 나아질 것"

경기동향지수 상승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들은 현재의 경기보다는 앞으로 6개월 후의 경기가 현재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전남지역 도시의 375가구를 대상으로 '2012년 8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을 조사한 결과 8월 중 현재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현재경기판단CSI(소비자동향지수)는 67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6개월 후의 경기전망CSI는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한 79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도는 것이어서 전체경기에 대한 판단이 부정적인지만 6개월 후에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6개월 전의 생활형편과 비교한 현재생활형편CSI는 90으로 전달보

다 1포인트 상승했고 6개월 후의 예상을 나타내는 생활형편전망CSI는 96으로 2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6개월 후의 가계수입전망CSI(96→94) 2포인트 하락, 취업기회전망CSI(83→84) 1포인트 상승, 물가수준전망CSI(134→141) 7포인트

트 상승, 금리수준전망CSI(101→96) 5포인트 하락 등을 보였다.

한편 CSI는 기준치 100보다 크면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나음을, 100보다 작으면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지 않음을 각각 의미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알림

행복한 미래 설계 하세요

한국FP협회 재무설계 강연·상담회

광주일보사와 재무설계 전문가가 단체인 한국FP협회는 오는 9월12일 오후 2시부터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재무설계 강연 및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재무설계를 통한 행복한 미래 설계'를 주제로 열리는 강연회에서는 재무설계 전문가가 자산관리 등 재무와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또 재무설계에 관한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CFP(국제공인 재무설계사) 및 AFPK(한국공인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재무설계사들이 무료로 재무상담을 해줍니다.

은퇴준비, 자녀 교육, 내집 마련, 부채 상환, 상속·세금 등 자산관리에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일시 : 9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
- 문의 : 한국FP협회 02-3276-7653
- 주최 : 광주일보사·한국FP협회

휴가철엔 승합차

7월 8185대 판매

31개월만에 최다

여름휴가 시즌이 되면 인기가 높아지는 9인승 이상 승합차가 올 7월에 31개월 만의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28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9인승 이상 승합차량으로는 현대차 스타렉스 5057대, 기아차 카니발 2963대, 쌍용차 로디우스 165대 등 총 8185대가 판매됐다.

이는 2009년 12월 8252대가 팔린 이래 최대치다.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은 경기침체로 위축됐고, 큰 차 수요도 감소세이다.

승합차 판매 역시 주춤해 올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보다 1%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올 7월 승합차 판매는 올해 월평균 판매량(6814대)보다 1371대나 많았다.

9인승 이상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 시트 배치에 따라 여러 사람이 함께하거나 캠핑처럼 짐 많은 여행에 공간을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어 휴가철이면 부쩍 수요가 늘었다.

2009년과 2010년 7월 승합차 판매량은 각각 6943대, 6694대로 월 평균 판매대수인 5782대, 6393대를 훌쩍 넘었다. 작년 7월에도 7569대가 팔려 월평균 판매대수(6827대)보다 많이 팔렸다.

/연합뉴스



이번엔 글로벌 로드 투어 이벤트

현대자동차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이번엔 글로벌 로드 투어 이벤트'의 참가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엔 글로벌 로드 투어 이벤트는 2013년형 이번엔 출시를 기념하고 최고의 상품성과 디자인을 앞세워 올해 들어서만 미국, 캐나다, 남아공 등 3개국에서 올해의 차를 석권한 이번엔의 검증된 품질을 강조하고자 실시되는 이벤트다.

/연합뉴스

건설사 74% "올 자금사정 나빠졌다" 1~450위 업체 조사

국내 건설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건설업 자금조달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능력 평가 1~450위 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 건설업체 금융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74%가 "2010년보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전년보다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는 응답률은 2001년 조사 당시 68.5%에서 10년만에 5.5%포인트 늘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원인으로는 '신규 계약 축소'(34.5%), '금융기관 추가 차입의 어려움'(20.0%), '자가 공사 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10.9%) 등이 꼽혔다.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는 이유는 지역별,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건설사들이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 중 간접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이 65.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돼 금융기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16.33 (-1.54)
코스닥지수	499.53 (+5.70)
금리 (국고채 3년)	2.81% (0.00)
원·달러 환율	1,136.70원 (+1.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PAR3 골프장, 연습장 매매

입지 | 화순 전남대 병원 3분거리

규모 | 전체부지면적 146,411㎡ / 사업승인면적 130,718㎡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40타석 비거리 170yd

편의시설 | 클럽하우스 1,552.80㎡ (라카룸, 샤워실, 레스토랑)
실외연습장 1,654.92㎡ (락카룸, 강의실, 골프샵)
주차공간 : 160대 주차

특이사항 | 감정가 82억원 / 매매가 65억
現회원 1,000명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문의처 010-9349-5555 · 062-446-5000

화순PGA (전대병원 뒷편)